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MY NAME IS RIVER

가제 : 내 이름은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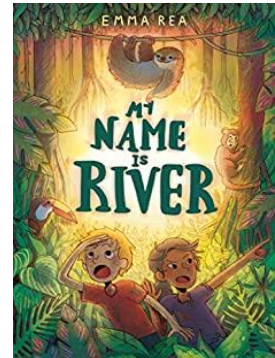
저자 : Emma Rea

출판사: Firefly Press Ltd

발행일: 2020년 8월 6일

분량 : 264 페이지

장르 : 모험/9세 이상



* 선데이 타임즈 '이 주의 아동서' 선정, '올 여름 최고의 아동서' 선정

*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아마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담과 거대 기업의 음모에 관한 이야기

딜런은 학교도 집도 아닌 브라질로 가는 30,000 피트 상공에 있었다. 딜런은 가족이 대대로 꿈을 꾸었던 한 아름다운 농장 지대가 거대 기업에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직접 현장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다. 과연 딜런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아름다운 아마존의 자연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 할 수 있을까? 웨일즈에 살고 있는 농부의 아들 딜런과 그의 친구 플로이드, 브라질의 소녀 루시아가 만나 벌이는 흥미진진한 이 모험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심오하면서도 즐겁고 자연스럽게 고민해볼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저녁, 딜런의 가족은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딜런의 아빠의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은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곧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딜런은 마침내 충격에 빠진 아빠가 전화기를 잔디 밭에 떨어트리는 모습을 보았다. 딜런은 곧 엄마와 아빠가 속삭이는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냈다. 그것은 바로 딜런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언젠가 딜런의 가족이 사려고 했던 브라질의 한 농장 땅이 소유주가 파산하는 바람에 경매에 넘어갔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그 일대의 땅을 모조리 사 모으고 있던 한 제약 회사인 '블루 버드'라는 회사에 매각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딜런 역시 어릴 때부터 그 땅과 관련된 오랜 가족의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언젠가 농부인 아빠를 따라 그 곳으로 가 함께 농사를 짓고 양들을 키울 계획으로 미리 반려견 맥을 양치기 개로 훈련까지 시키고 있었다. 딜런은 그 땅을 사기 위해 이미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때문에 딜런의 엄마가 자신의 잼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나무 위의 집을 짓는 것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꿈들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딜런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 한 후 블루 버드의 CEO '무스타파 샤디드'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리곤 웹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른 임직원들의 정보를 찾아보던 중 아주 익숙한 얼굴을 하나 발견 했다. 그 사람은 바로 '맥 아담스'라는 남자로 친구 플로이드의 아빠였다.

다음날 지리 수업 시간 딜런은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계속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플로이드의 얼굴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농장을 되 찾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방과후 딜런은 플로이드의 집으로 찾아가 겨우 플로이드를 만났다. 플로이드는 사실 딜런이 여태껏 한 번도 만나 본적 없는 종류의 아이였다. 플로이드가 언제나 심각하고 냉철하며 진지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딜런은 플로이드에게 남모름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딜런에게는 동생 '조'가 있었는데 플로이드의 아빠 맥이 브라질에서 일하게 된 후 그는 아내인 딜런의 엄마에게 부활절 휴가 때까지만 조를 데리고 브라질에 함께 있다고 말한 후 그곳에 조를 데려갔다. 하지만 문제는 부활절이 지나고 그 이후 반년이 넘게 흘렀지만 둘 다 이 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딜런은 플로이드에게 농장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털어놓았고 플로이드의 아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플로이드는 브라질 살바도르시에 있는 아빠와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이며 그나마 동생 조와는 9일 전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플로이드는 마지막 통화에서 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요즘 아빠가 벽에 이상한 종이들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낮선 이들과 통화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거나 혼잣말만 중얼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딜런은 곰곰이 생각 끝에 브라질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는 플로이드에게 직접 들어서 브라질 회사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알아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플로이드가 망설이자 딜런은 자신이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받은 돈으로 상당한 금액을 저금한 통장이 있으니 그 돈으로 함께 동생을 구해오자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바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부모님들께 학교에서 주최하는 지리 탐사 여행에 참여한다고 말했고 선생님께겐 독감으로 집에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둘러댄 후 브라질로 떠났다. 하지만 일은 딜런이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았고 딜런은 살바도르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길에서 강아지와 지내며 살아가는 러시아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딜런은 러시아 덕분에 알게 된 아마존 원주민 소년 토치의 나무 위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물의 순환 작용으로 아마존 강과 자신이 살고 있는 강이 하나로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과 단지 자신의 가족 농장만을 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마존 전체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딜런은 블루 버드 때문에 나무늘보를 포함한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비밀스러운 실험 때문에 개들이 희생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딜런과 친구들은 과연 플로이드의 가족과 아마존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환경 문제와 동물 실험, 브라질 원주민 문제와 빈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육적이고 순수한 열정이 넘치는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엠마 레아 (Emma Rea)는 저자, 검토자 및 편집자이다. 입니다.저작으로는 North Somerset Teachers' Book Award의 최종 후보작에 올랐던 Top Dog이 있으며 현재는 런던에 살고 있다.

제목 : THE TEN RIDDLES OF EARTHA QUICKSMITH

가제 : 퀵스미스 학교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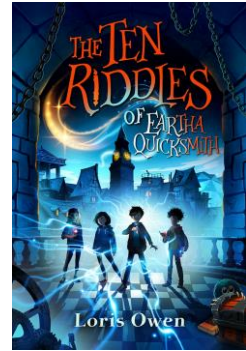
저자 : Loris Owen

출판사: Firefly Press Ltd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모험



*** ‘아르테미스 파울’,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는 어린이 독자라면 반드시 좋아할만한 책**

열두 살 퍼즐광 소년 킵 브랜리는 어느 날 진짜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딱정벌레 모양의 드론이 가져다 준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받았다. 킵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풀게 되고 ‘퀵 스미스 컬리지 오브 스트레인지 에너지 (Quicksmiths College of Strange Energy)’라는 학교로 가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킵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킵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 하게 되었다. 킵은 과연 이 모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누구나 호그와트 학교에 대해서 처음 느꼈을 법한 환희와 설렘과 신비한 마법과 마법만큼이나 놀라운 과학 이야기, 수수께끼, 끈끈한 우정, 위험 천만한 모험이 주는 흥미진진함이 가득한 퀵스미스 시리즈의 제 1권이다.

어느 날 부턴가 킵은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킵은 공원에서 숙제를 하던 중 또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수상한 느낌이 들었고 허공에 대고 자신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공원을 한번 쪽 둘러본 후 나무 가지들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한 타원형 드론을 보았다. 잠시 후 그 드론은 킵에게 다가왔고 킵은 드론에 달린 작은 선반에 있는 봉투 하나를 보았다. 그 봉투에는 검붉은 잉크로 쓰여진 킵의 이름과 함께 ‘1급 기밀’문서를 암시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킵은 그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고 편지 대신 50 펜스짜리 동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동전을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 50펜스는 은색이었는데 이 동전은 금색이었던 것이다. 킵은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다른 50 펜스짜리 동전을 찾았고 방금 받은 금화와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은화의 뒷면에는 사자 그림이 있는 것과 달리 금화의 뒷면에는 화염이 빛나고 있는 이상한 촛불이 있다는 것을 발견 했다. 그리고 은화의 앞면과 마찬가지로 금화의 앞면에도 똑 같은 여왕의 초상이 있긴 했지만 금화에는 여왕의 이름 대신 ‘당신의 세계를 바꿔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 했다.

집으로 돌아 온 킵은 그 편지를 자신의 반려 동물이자 경호원인 날다람쥐인 핑키의 털 속에 숨겨 두었고 킵이 다섯 살 때 가족 모두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한 석영 조각을 들여다 보았다. 킵의 엄마 로잘린드는 지금 7년째 병원에 있었고 누나 수지는 7년 전 실종된 상태였다. 7년 전, 다섯 살이었던 킵은 엄마 로잘린드와 함께 예전에 살았던 바닷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 당시 킵의 아빠가 현장으로 달려와 로잘린드와 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의식도 없는 로잘린드가 작은 석영 조각만큼은 꼭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찾은 로잘린드는 킴을 불러 그 석영 조각을 건네며 어린 킴에게 그 조각을 잘 간직하라고 일러주었고 킴은 그 후로 계속 엄마 생각이 날 때면 그 조각을 들여다보곤 했던 것이다.

한편 킴은 얼마 전부터 새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빠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원래 살던 곳을 떠나 가장 친한 친구 할과도 헤어지고 런던으로 이사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킴은 아직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했다. 학교 내 어느 무리에도 쉽게 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킴은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다 재빨리 학교 밖을 빠져 나와 아빠의 부탁으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아슬라이와 함께 식료품 가게에 들렀다가 가게 옆에 세워져 있는 자판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 모양 겉면에 적힌 ‘당신의 세계를 바꿔라’라는 문장을 또 보게 되었다. 킴은 당장 그 기계에 동전을 넣어 플라스틱 달걀 하나를 손에 넣었고 그 달걀 안에 있던 배지와 한 수수께끼 문제를 발견했다. 킴은 곧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계획한 우연과 수수께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어 수수께끼를 통해 ‘퀵스미스 칼리지’라는 학교에 관한 웹사이트 주소와 자신이 이 학교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킴은 웹 페이지를 통해 누군가가 자신을 이 학교에 초대하기 위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올려 둔 것을 발견 했고 당일 그 장소인 신기한 편의점에 도착했다. 킴은 가게 안을 둘러 보던 중 한 증명 사진 촬영 부스 근처에 서자 가슴에 찬 배지가 뜨거워지면서 부스 안의 의자가 저절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킴은 몇 초 후 그 부스 옆에 있는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문 사이로 소나무 향이 불어오면서 푸른 잔디, 회색 자갈길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킴은 믿을 수 없는 광경 속에서 용기를 내어 곧장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퀵스미스 학교는 킴이 그동안 다녔던 학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 학교는 킴처럼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였다. 킴은 그 학교에서 4백 년 전 한 천재가 만든 수수께끼와 퍼즐을 풀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킴은 자신이 더 많은 수수께끼를 푸는 데 성공 할 수록 더욱 가까이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루 빨리 수수께끼를 풀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이 모험이 자신의 가족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 것이다. 킴은 과연 새로운 친구들과 핑키와 함께 이상한 에너지, 원홀, 어둠의 힘의 비밀을 풀고 가족의 비극적 이야기를 밝히고 이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 마법과 과학, 퍼즐이 뒤섞인 환상의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스릴 넘치는 첫 번째 시리즈이다.

<저자 소개>

로리스 오웬 (Loris Owen)은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살았다. 그는 전직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켄트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다. 전작으로는 『Eartha Quicksmith』가 있다.